

구로구, 사람과 자연 공존 탄소중립도시 조성

27일 선포식서 선언문 낭독 비전·기후행동 실천법 공유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27일 오전 8시30분 안양천 구로G캐슬빌 메인무대에서 '구로,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을 주제로 '탄소중립도시 구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의 비전을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탄소중립도시 선언문 낭독 ▲탄소중립도시 선포 퍼포먼스 ▲'G'구로 수호대' 발대 선언 등이 진행된다.

탄소중립도시 선언문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며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구로구정, 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 환경단체, 기업대표, 어린이가 다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주민 모두가 기후위기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교육·홍보, 어린이는 미래 사회를 이끌 주인공으로서 생활 속 기후행동 실천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퍼포먼스에서는 기후행동이 환경을 살리고 탄소중립을 꽃피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G'구로 수호대' 참여자 1000여명이 무대 아래에서 초록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고 무대 위 참여자들이 조끼로 물줄기를 주면, 비어 있던 화분에 탄소중립의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연출한다.

또한 '그린(Green) 구로, 그레이트(Great) 구로'라는 구호(슬로건)를 내걸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캠페인 'G'구로 수호대' 발대 선언을 열고 주민의 자발적 기후행동 독려 및 G

구로 수호대 1만명 모집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각종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코마일리지, 온구로(탄소제로 걸기 참가 전용 앱) 등 환경정책과 환경단체들을 소개하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기후행동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오전 9시 키움 히어로즈 치어리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2부 행사 탄소제로 걸기가 시작돼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고취할 예정이다.

완주자 대상으로 코웨이 인어의 자(열찬) 등 40점의 경품 추첨 이벤트도 마련된다.

장인홍 구청장은 "지구 온난화가 가져오는 기후위기에 지구촌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은 불편하지만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탄소중립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서소문고기차도 전면 통제

서울 서소문고기차도 전면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서소문고기차도는 충청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단순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안전성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다.

지난 21일 서울 서소문고기차도 철거 공사를 위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서소문고기차도는 충청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단순 보수공사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해 안전성 이유로 철거가 결정됐다.

/연합뉴스

고병원성 AI·ASF 유입 차단 총력

김포시, 전방위 방역 조치 가금농장 예방·출입 통제

경기 김포시가 최근 경기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형)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14일 김포시와 인접한 연천군에서 발생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형)은 12일 파주에서 발생했다.

시는 5개의 가금 전업농가가 10km 이내 방역대에 포함돼 이동 제한 및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공수의사가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방 검사를 시작했고, 소독 방제차량 6대를 동원해 확산방지의 진입로 및 야생조류 서식지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형)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농가 단위의 긴급 방역을 위해 농가·양돈농가에 주위에 멧돼지 접근 차단 등을 위한 기피제 살포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 단위의 긴급 방역을 위해 가금·양돈농가에 소독약 5178kg, 방역장갑 1070kg, 멧돼지 기피제를 배부했으며, 전담관들이 전화 예방을 하고 있다.

김포-문천식 기자 mcs@siminilbo.co.kr

경남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내달 4~7일)

차량 65만여대 16억 혜택

경남도가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연휴 기간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10월4일 오전 0시부터 7일 밤 12시까지 총 4일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 민자도로는 ▲마량대로 ▲가거대로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3곳이다. 총 65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해

약 16억원 규모의 무료 통행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를 창원시가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도는 도로 이용자들이 혜택을 사전에 인지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민자도로내 도로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도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사전 홍보할 예정

이다.

아울러 고항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안전관리대책 수립 등도 시행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내 민자도로 명칭 통행료 면제 정책은 '유료도로법' 제15조에 따라 코로나 시점(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정부 명칭 민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한은=김정원 기자 kji@siminilbo.co.kr

경기도는 철도 공사 현장 안전·임금 체불 점검

30일까지 경미사항 시정 조치... 지속 추적 관찰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건설 기계장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도내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23~30일 육장-포천선과 도봉산-목정선 광역철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 안전관

리, 수해 대비 체계, 화재 예방 관리 실태를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 차량 통행 관리, 집중 호우 발생시 배수시설과 침수 대응 체계,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스 연성 자체 관리 상태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임금 체불 여부와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살펴 사공사와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발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 할 계획이다.

민정홍 기자 mhj@siminilbo.co.kr

울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은평구, 부적합 사항 시정 요구도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하반기 전기차 충전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지역내 법정주차시설 264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531여 기로, 충전설비 외관 점검, 소화장비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는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등 관련 규정의 지속적 인 홍보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편리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충전시설을 설치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하반기 특별 안전 점검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이를 통한 주민 안전의 증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용인시, 전기차 총 1030대 보급

최대 1770만원 보조금 지원

경기 용인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2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지난 8월 조기마감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총 1030대(승용차 1000대, 화물차 30대)다.

지난 1월부터 시가 지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지원규모는 전기차 3219대, 수차 104대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이뤄지면 용인특례시는 올해 모두 4249대(승용차 4000대, 화물차 230대, 버스 18대, 어린이통학버스 1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의 경우 최대 933만원, 화물차는 최대 177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등 신청 대상에 따라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자녀 수에 따라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이 전기 승용차인 경우 국비의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공공기관으로, 2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모두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의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은=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25~28일 마을버스 연장 운행 구리시, 축제기간 교통 불편 해소

경기 구리시는 오는 25~28일 열리는 '제40회 시민의 날' 행사와 '2025 구리 코스모스 축제' 기간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구리한강시민공원까지 지역내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제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철 8호선 구리역·풍곡역·장자호

수공원에서 구리한강시민공원을 오가는 마을버스 5개 노선(2번, 5번, 6번, 6-1번, 7번) 35대를 투입해 운행한다.

연장 운행될 버스는 시민의 날 행사일에는 오전 9시~오후 4시, 코스모스 축제 기간에는 오전 9시~오후 11시 운행한다.

자소수공원역 1·4·6번 출구 인근 주요 경유정에서는 2번, 5번, 6-1번 마을버스가 연계 운행될 시민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살고있는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꿔 가고 있지만
'시민에게 맑은 물을 드린다'는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흐르겠습니다.

전문인력 확충, 체계적인 역량 강화,
정수시설 개선으로
정수장을 탈바꿈했습니다.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으로 더 깨끗해졌습니다.
· 2021.9.2. 국제인증 획득

시민께서 인천수돗물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 인천하늘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Waterworks Headquarters Incheon Metropolitan City